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6(343~359)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과 그 성과

이상율*

Sustainable Coffee Program and its Achievement in Vietnam

Sang Yool Lee*

요약 : 최근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의 농가 단위에서 커피 가격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커피 재배 면적의 증가와 세계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커피 가격의 등락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증 커피의 선호로 커피 관련 기업에 의한 보다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베트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커피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증체제의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보다 본격적인 확대는 정부 및 민간의 협력체제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Sustainable Coffee Program)'의 실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닥락 성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시행의 결과와 그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이 커피 생산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에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닥락 성에서 전개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체적인 측면을 이해하고자한다.

주요어 : 지속가능성, 닥락 성, 인증, 커피 생산, 환경

Abstract : The coffee price from the farm-gate level has been quite unstable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expansion of coffee cultivation, and the volatility of coffee price in the world market. The preference toward consumer's sustainable coffee has influenced on the coffee purchase by the world major coffee companies. With this background, Vietnam began to follow the trend of sustainable coffee cultivation by the major coffee export companies which cooperate with some certification authorities. However, a proposed program called 'Sustainable Coffee Program' in 2012 was initia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program was initiated, and which organizations were involved in practice level, and what the program have achieved for sustainability. Finally, non-participant group was also considered on how they have been influenced from the existence of the 'sustainable coffee program' in direct and indirect manners.

Key Words : sustainability, Dak Lak, certification, coffee production, environment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37)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angyool@cu.ac.kr)

1. 서론

20세기 말에 국제 커피 기구의 커피 보장 가격의 폐지와 더불어 199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커피시장에 진입한 베트남은 커피 생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세계 커피 생산 2위 국가로 부상하게 되자, 세계 커피시장은 과잉생산 국면으로 들게 되었다. 또한 로부스타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는 베트남 커피의 확산에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세계 커피 시장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급락을 경험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농가 소득은 불안정하게 되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커피생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커피에 대해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 커피 등의 개념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유기농, 열대우림연합, 친조류, 그늘막 등과 같은 개념들의 '지속가능한 커피'가 출현하였다(임수진, 2011).

지속가능한 커피는 보편적으로 유기, 환경 친화, 및 공정무역 커피로 이해된다. 지속가능한 커피는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조건이 균형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일반 커피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커피 생산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기반 시설, 의료, 교육 수준을 강화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당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것이고, 비교적 친환경 작물인 커피생산을 지속하게 하여 해당 공동체의 생태적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커피의 연구는 전통적인 커피 로스터(roaster)가 주도한 공급체인과 시장이 국지적 차원에서 커피 생산자에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 비해 베트남에서 커피 생산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과정에 대한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커피는 쌀 다음으로 농산품 수출에서 중요하며, 300만 명이상의 소규모 농가의 생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커피 분야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 즉 영농, 수확, 가공, 수확 후 저장이 낮은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고, 커피나무가 오래전에 심겨진 지역이 많고,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고, 물의 과다한 사용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점차 커피 산업 분야와 농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농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소비자들의 점점 증가하는 지속가능한 커피 소비에 대응하여 커피 산업 분야에서도 그러한 경향에 맞추어 나가야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많은 커피와 관련된 기관과 당국 또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왔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The Sustainable Coffee Programme)'은 2012년에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 기관과 민간 협력체로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커피생산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조직과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닥락성 내 다른 지역(district)에 위치한 두 개의 사례 연구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의 지속가능한 평가를 위한 성과와 비참여 농가의 커피 생산을 둘러싼 평가 또한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바탕에는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3가지 주요 측면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 가운데 경제 및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 두 부문의 지속가능성에는 커피 생산 과정에 투입된 농업 활동, 수확, 가공, 비료와 제초제의 사용 및 물 관리 등이 포함된다(Hardisty, 2010).

2. 베트남에서의 지속가능한 커피의 전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커피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농촌 주민의 생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피가 1차 소득원이 되고 있는 직접 커피 생산에 관여하는 소규모 커피 농가 외에도 커피는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외환 소득과 고용, 하부구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커피 생산자와 커피 공급체인을 따라 많은 중간 단계 간의 관계 정도는 국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통합 및 연결 형태가 일반적인 구성이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과 더불어 커피 생산과 무역에서도 이 3가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이 그 핵심이 되어왔다(U.N. Conference, 2009).

또한 지속가능한 커피의 구체적 실천의 배경에는 공정무역의 빠른 성장이 큰 기여를 하였다. 즉 북반구와 남반구의 소득 격차에 따른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윤리적 소비, 대안 무역, 착한 경제의 실천을 위한 운동과 인증체제로서 공정무역은 발달하였다. 1980년대 말 공정무역 인증제가 실시된 후 2000년대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의 참여에 의해서 공정무역은 확대되었다(이용균, 2014). 그 후 유기농운동 국제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FOAM)에 의해서 1995년 커피 생산의 환경적 조건에 관한 유기농 기준의 적용을 구체화하면서 커피 유기농 인증을 시작하였다. 또한 열대우림의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형성된 NGO 단체인 열대우림 연맹(Rainforest Alliance)도 1995년 생태다양성 보존과 사회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커피 농가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커피 인증체제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크레프트(Kraft)와 네슬레(Nestle)같은 다국적 로스팅 기업들은 자신들의 커피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의 커피 판매에 대한 전략으로서 기존의 인증체제가 아닌 새로운 인증체제인 1997년에 조성된 유티지(Utz)와 협력 체제를 갖춘다. Utz 인증체제는 주요 커피 기업들이 유럽의 소비자를 위한 농업 실천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기업과는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한 인증체계가 그 특징이다. 같은 년도에 다국적 로스팅 기업들은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산자 그룹과 NGO 단체와 더불어 4C 협회를 만들었다. 4C는 제 3자에 의한 인증체계와 달리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Elder 외, 2014).

베트남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커피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언급된 베트남의 커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과 더불어 베트남에서도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낮은 커피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되면서, 특히 소규모 농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커피 지역에서는 어떤 번화가 필요하였다. 커피 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농가들은 전략 또는 그들의 활동은 기존의 커피 재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고, 다만 비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비용의 감소에 관심을 보여준 정도였다(이상율, 2013). 일부 농가에서 보여준 커피 재배 지역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 등 다양화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규모의 농가가 지배적인 커피 생산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커피 생산이 다른 농업 활동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닥락 성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한편 커피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커피 생산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정체 내지는 가격의 급락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커피 문제가 세계 커피 생산의 흐름에 영향

을 주었다. 먼저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커피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커피 생산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커피는 로부스타여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커피 생산 농가에서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커피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점차 베트남 정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단체들은 보다 지속가능한 커피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였다(이상율, 2013).

전체적으로 실제 커피 생산만으로는 어려운 형편의 농가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비용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커피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영농에 필요한 비료 및 물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융자를 받아 대처하지만, 그 융자의 이자가 높을 뿐 아니라 커피 판매에 대한 가격이 중간 거래업자와 커피 수확 이전에 결정되어 시장에서의 커피 가격의 절반만 지불받는 조건도 따른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생산자를 지원할 여러 가지 안들이 제기되었다(Dept. of Crop Production, 2009). 또한 선별적으로 커피 생두가 골라져야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커피의 생두를 수확하는 방식은 커피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고, 기업들이 중간거래업자를 통한 커피 거래 대신 농민과 직접 거래를 하여 커피 품질을 높인다든지, 농민들이 공동으로 기계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 커피의 세계 시장에서 주요 역할과 더불어 위기감에서 시작된 개선 방향으로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커피에 관심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즉 세계 커피 시장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 커피 시장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커피 로스트 기업들 네슬레, 크레프트, 사라 리, 스머커스와 유통 및 소매업자인 월마트, 코스코, 스타벅스, 맥도날드, 던킨 도넛 등이 지속가능한 생산 기준에 적합한 커피 시장에 역할을 수행하였다(Elder 외, 2014). 그 결과 외국계 커피 수출회사들은 국제적 기준의 인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면서, 공정무역(Fairtrade), 열대우림(Rainforest), 유티지(Utz), 4C와 같은 국제적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4개 인증 단체들이 베트남에서 외국 수출기업의 커피 품질 제고라는 목적과 더불어 활동하게 된다. 4개의 인증 단체 가운데 공정무역과 열대우림의 활동은 닥락 성에서는 Utz와 4C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특히 닥락 성에서 4C는 2004년, Utz는 2006년에 각각 주요 커피 인증기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Utz 인증 체제를 따르는 커피 생산자는 매년 이행 규정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 제 3의 독립적인 감사자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행 조건의 내용에는 제한된 농화학 물질의 사용과 기록이 포함된 커피 생산 활동과 효율적인 농장 관리,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호, 고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의료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회적, 환경적인 기준 체계이다(Utz Certified Vietnam Office, 2009). 그에 비해 커피 공동체를 위한 일반 코드(The 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4C) 인증 체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커피 가공 및 거래, 수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소규모 농민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닥락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 인증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에서의 현황자료이다.

Utz와 4C 외 열대우림과 공정무역 인증 체제도 있으나 위 두 인증 체제가 닥락성의 주요 커피 생산과 관련한 주요 인증 부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상대적으로 4C 체제의 인증은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닥락 성에서는 공정무역 인증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는 적지만 커피 생산면적은 조금 더 크며, 평균 생산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C 인증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표 1. 각 인증 기관의 닥락 성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

인증기관	참여 가구수	면적(ha)	생산량(tons)	가구당 평균 면(ha)	평균 생산(100kg/ha)
4C	8,530	13,800	45,711	1.62	33
UTZ	11,346	14,098	39,672	1.24	28
열대우림	1,400	2,100	6,153	1.50	29
공정무역	137	243	900	1.77	37
합계	21,413	30,241	92,436	1.41	31

자료: Dak Man, Certified Fairtrade, 2014

엄격한 기준을 이행하는 조건의 공정무역의 인증 체계를 같이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일부 커피 기업들은 2015년경 열대우림연맹과 4C가 설정한 지속가능한 한 기준에 따르기로 하였고 네슬레는 2015년경에 전 세계에서 18만 톤 인증 커피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증 커피는 2013년 기준 전년의 20%에 비해 약 44%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커피의 80%이상이 2020년경에 지속가능한 기준에 의해서 커피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Vietnam News, 2013). 또한 새로운 방법은 농민들의 삶에 보다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은 영농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면서 생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커피의 품질도 개선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베트남에서 농민들은 80년대와 90년대와 같은 토지의 개간 또는 구입을 통한 경지 면적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다 많은 커피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Eco-Business, 2013).

많은 커피 생산국은 인증 체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은 소규모 농가로는 너무 지나친 부담이 되고, 다만 규모가 큰 생산업체 정도가 감당할 정도라는 것이 우려 사항이었다. 보다 판매에 유리한 점과 일부 추가 커피 가격이라는 직접적인 수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지표에서 인증 체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준수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커피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었다(Haggar 외, 2012). 지속가능한 커피의 인증제도는 유기농과 친환경 재배라는 방식에 의해서 가난한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가격 프리미엄에 따른 최저 가격이 설정됨으로써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커피 품질을 기준으로 한 커피 프리미엄 가격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비교적 일반 커피와 공정무역에서 제시된 가격과는 차이가 비교적 크다. 예로서 중남미 지역에서 아라비카 종의 공정무역 인증 체제에 따른 커피는 파운드당 124센트(US cents)이지만 일반 커피는 파운드당 70센트의 차이로서 그 차이가 있다(kilian 외, 2006). 그러나 인증체제에 의해서 반드시 보다 높은 프리미엄 가격이 설정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커피 가격은 종종 인증제도에 의해서보다는 품질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은 생산과정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생산량에서도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추가적인 가격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밖에도 지속가능한 커피를 둘러싼 공정무역의 인증 체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으로서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과 규칙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아닌 선진국 참가자들이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상황에 비해서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비합리적인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사라 리온, 2010). 생산자들도 인증 커피의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 역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 세계 커피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구매량은 지속가능한 커피의 공급량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커피 판매의 보장으로서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커피 재배의 기술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Smith, 2010).

커피 생산과정을 둘러싼 지속가능한 기준은 국가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속가능한 커피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삶의 질에 관한 평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에서도 지속가능한 커피에 관한 연구에서 그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평가는 다소 모호한 것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중남미 지역에서 평가한 지속가능성의 기준의 조사 방법론 구성이 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즉 어린이 노동과 교육 문제는 닥락 성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으며, 유소년 어린이의 노동의 의미는 없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대농장 시스템에서 커피 생산에 관여하는 계절노동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과 그들의 삶의 질 문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베트남에서 적용하기에는 적절한 지표로 보이지 않는다.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표 또한 이 지역 모든 커뮨에서 비교적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Kuit, 2006).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세계 시장에 늦게 진입한 베트남에서 커피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측정은 Utz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Cosa Report, 2013). 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베트남에서 인증체제의 농가는 비 인증 농가에 비해 생산량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한다. 커피 생산에서 매우 집약적인 생산을 하는 상황에 비추어 이는 작은 성과가 아니라는 평가였다. 환경적인 농업의 실천으로 비용의 감소와 덜 유해한 살충제 때문에 질소 침출의 위험 요소도 줄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보다 지역에 적합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비 인증 농가보다 인증 농가들은 환경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증 농가는 비교적 생태학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비해 비 인증 농가는 단일작물재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어려운 점은 여전히 국영농장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국영농장이 인증 제도에 참가하는 경우 커피 생산에 따른 프리미엄 가격의 농민들과 분담을 비롯하여 생산 비용과 임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혜택과 노동자가 분담하는 비용 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속가능성의 평가에서 베트남 지역 적용을 위해서는 질적 및 양적 평가의 도구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배경

2000년대 접어들면서 베트남에 외국 기업 중심의 커피 수출회사들이 이 지역의 주요 인증 체제였던 Utz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 수출기업 주도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와 시민 단체, 커피 수출 기관, 무역 파트너 등 정부기관과 민간 간의 협력에 의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도입은 닥락 성의 일반 농가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2년에 시작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The Sustainable Coffee Programme)'의 성격과 그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닥락 성 내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예비 조사 및 연구지역의 일반적인 농업 현황의 파

악과 더불어 2014년 6월 3주간 집중적으로 인터뷰 및 설문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크롱 팍 지역(Krong Pak disrict)에 위치한 Ea Yong 커뮨과 쿠마가르 지역(Cu ma'gar district)의 Quang Hiep 커뮨에 위치한 마을에서 회수된 76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각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그 커피 생산 방식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았던 농가[1](이하에서 비 참여 농가로 표현)가 혼재된 마을이다.

본 연구 조사는 커피 생산 과정에 관한 사전 연구와 닥락 성 전체가 커피 생산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조영국, 2014; 정수열, 2014)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커피의 이 지역에서 전개 과정과 참여 농가의 성과가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주요 외국 수출기업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자와 인증기관의 인증 담당자, 연구 지역의 커뮨 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담당자, 참여 농가의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도자 등 비교적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사람들과 인터뷰와 설문 작업을 병행하였다.

2000년 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커피 수출회사들은 자체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커피 수출회사 올람(Olam)은 베트남에 회사 수익의 1~2%를 해당 커피 생산 농가에 재투자개념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Olam International, 2016). 올람(Olam International)과 같은 기업은 4C 인증체제를 수용한 외국계 커피 수출회사이다. 4C 인증체계와 협력한 초기 동기는 커피 로스트업계에 종사하는 구매자들과의 상업적인 협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4C인증 체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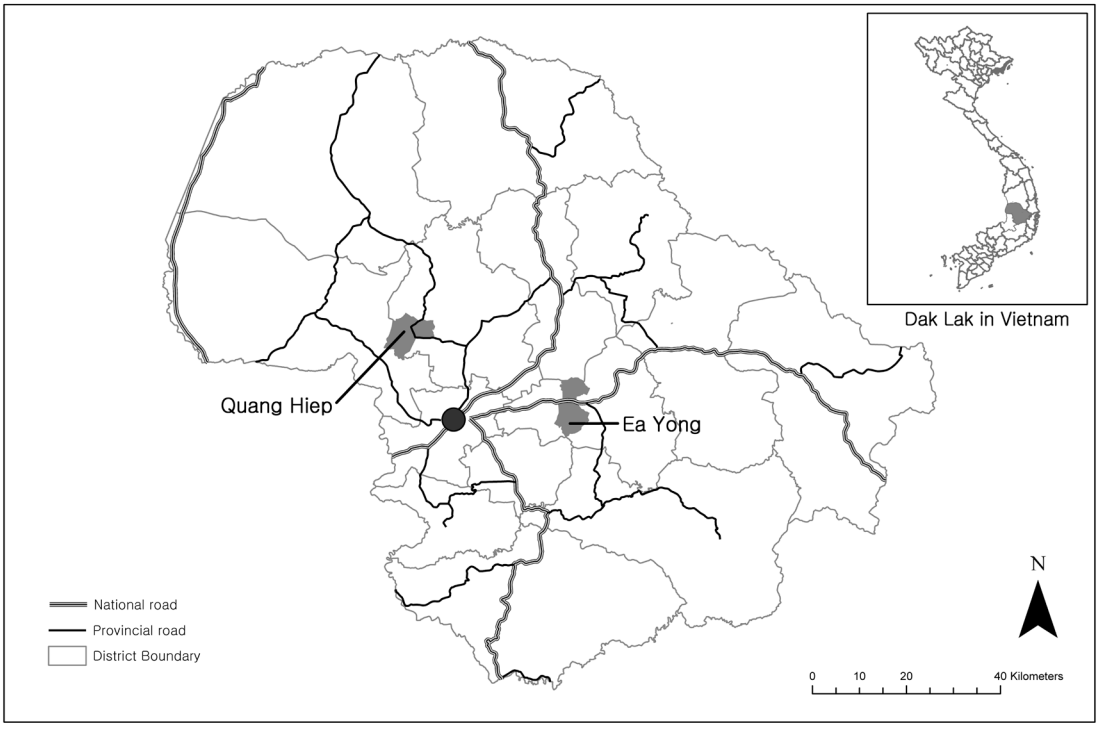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지역(닥락 성의 Quang Hiep(Cu M'gar district) Commune과 Ea Yong Commune(Krong Pac district)

의 협력관계 구축은 농민들과 보다 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올람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외국 기업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주요 커피 판매 지역인 특히 유럽에서 시장 판매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외국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커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 주요 외국계 기업과 직, 간접적인 연계에 의한 커피 농가에서는 각 농가 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그 회사에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그 뒤 본격적인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실행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의무 사항이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가 된다.

본 연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은 비교적 작은 커피 기업에 의해서 2012년 이후 실행되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의 농촌 및 농업부는 소위 "농업의 경쟁성 재고(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on)"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정부 부처의 후원에 힘입어, 닥락 성 일부 지역이 그 프로그램의 실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일부 기업들이 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 2012년 초 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를 거치는 계약과 더불어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소규모 농가가 90%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의 농민들은 그룹 또는 협동조합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된 커피를 수매해서 수출기업에 연결하는 소규모의 수매자(collector)에게 판다. 그들은 커피 판매에 도움이 될 농민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Solidaridad, 2009, 2011). 마을 단위의 그룹 또는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 조직이 형성되었다.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은 커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커피 재배자의 적절한 비료 사용 방법, 해충 방지, 물의 적절한 사용, 적절한 토양 관리, 생 커피의 수확, 커피 건조 방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영농 활동을 신장시키고 투입 요소의 비용을 줄이고 농민에게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2013년 초에 약 20만 ha의 커피 면적에 그 프로그램 하의 인증이 부여되었다. 20만 ha 중 15만 ha는 4C기준 이행의 조건이었다. 2015년 30만 ha, 2020년 48만 ha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 때 외국 주요 수출 기업이 적용하였던 Utz 인증을 위한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증을 전제로 시행된 프로그램이었다. 즉 참여 농가들은 교육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4C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베트남에서 커피 생산의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비옥도가 낮아지고 지하수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고 비용의 에너지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Technoserve, 2013).

Ea Yong 커뮨에서는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실행자로 Embeden, Drisgui & Epping Consulting(EDE)이라고 하는 기업이, Quang Hiep 커뮨에서는 INEXIM 기업이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두 연구 지역 커뮨에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시행될 때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 2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되었다. 그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었던 주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둘러싼 상위 조직에서 재원의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에 직접 참여한 각 마을 단위의 주체들은 계약 당시에 2년이라는 시효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이 더 연장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인터뷰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그 당시에도 그 프로그램의 닥락 성에서 그 규모에 비추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마을 단위에서 참여한 농가의 규모는 다양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당시 Ea Yong 커뮨에서는 6개의 참여 그룹이 형성되었고, 각 그룹은 15명에서 20명의 커피 생산 농가구로 구성되었다. 반면 Quang Hiep 커뮨에서도 6개의 그룹이 조직되었는데, 각 그룹의 규모는 35명 정도의 커피 생산 농가구로 구성되었다.

각 그룹의 조직에서 처음에는 참여 농가의 조건이 다소 엄격하였다. Ea Yong 커뮨에서는 커피 생산 면적이 3ha 이상인 농가가 그 기준이었다. 이 커피 면적 기준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커피 경지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였으며, 매년 그룹의 공동 기금을 위해서 100만 VND를 기여할 수 있는 농가에 제한되었다. 일부 커피 생산 농가만이 그 정도의 경작 면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조건은 현실적이지 못해 소수의 농민만이 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참여 농가에 부여된 그 조건은 참여 농가의 수를 제한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반면 Quang Hiep 커뮨에서 참여 과정은 이와는 달랐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참여에 적용된 기준은 그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설문 조사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시행 1년 전부터 행해진 각종 커피 생산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 정도였다. 이점은 각 마을 단위(반드시 마을 단위가 아니기도 함)의 하위 그룹의 구성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보다는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리더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커피 거래 상인이 참여 농가로부터 커피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은 거의 모든 커피에 kg당 200VND의 프리미엄 가격[2] 혜택을 농민에게 부여하였다. 그 외 참여 농가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 기업(예, INXHIM)으로부터 비료와 살충제를 시중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고, 그 기업은 해당 비용의 40%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구조였다. 또한 그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커피 생산과정의 교육 분야를 구성하여 지원하였다. 지금은 중단된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참여 농민들은 무엇보다 그 기업이 잘 지원하였던 것은 커피 생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속히 비료와 살충제를 참여 농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 농가는 비료 및 살충제 구입에 따른 비용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지역 모두 같았다. 농민들이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처음 제시된 커피 가격의 프리미엄 부분은 농민에게 주어지지 않기도 하였고, 농민들이 재배한 커피가 인접한 국영 농장에 판매될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환경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한 혜택은 이 보다 앞서 시작된 주요 외국 수출 기업의 지원에 의한 커피 농가의 지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외국 주요 수출 기업들은 비료와 살충제 구입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수출기업은 약 3년간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가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커피 경작에서 주요 프리미엄은 400 VND의 혜택으로서, 단순히 농가에만 지불하는 것이 방식이 아니고 400VND에서 200VND는 농가에, 150VND는 중간 상인에게, 50VND는 그들의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 마을 지도자에게 커피 킬로그램 당 추가로 더 지불하는 형태였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3년이지만 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연장되었다. 즉 생산, 생산 감독자, 중간 상인에게 지원비를 나누는 구조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에도 관여하고 중간 상인을 통한 커피 물량의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참여 농가가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할 의무는 커피 생산 활동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기록철은 교육 및 연수 과정, 비료 및 살충제 살포에 관한 정도, 물 사용 정도, 판매에 관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각 농가의 커피 생산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기록된 기록철은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조직 및 지도자에게 제출하게끔 되었고, 그 마을 조직자는 다시 커뮨 단위의 그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다. 실제 농민들의 기록 작성은 처음과는 다르게 판매에 관한 기록은 확인 될 필요가 없었다. 이 점은 주요 외국 수출회사들이 시행한 프로그램의 일부 목적이었던 양질의 커피 확보와 시장에서 요구 사항과는 다르게 정부 지원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실행자였던 인티멕스 그룹(Intimex Group)의 4C 인증기준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담당자 Do Ha Nam에 의하면,

> "농민들의 커피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해당 지역 단위의 커피 구매자들은 커피 생산 기준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며, 인증 커피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가격을 지불하였지만 여전히 인증 커피와 비 인증 커피를 같이 섞기도 했다. 또 일부 구매자들은 농민에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따른 농민에게 추가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프로그램의 기준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 규모의 회사들은 외국 주요 수출 기업과는 달리 그들의 지원에 의해 생산된 커피에 대해 그 회사에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실제 2013년 말 경에는 끝났지만 그 시기에 조직된 지속가능한 그룹은 여전히 남아있다. Ea Yong 커뮨의 마을에서 각 그룹의 구성원들은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무렵 참여의 전제조건이었던 기금을 여전히 공동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Quang Hiep 커뮨에서 참여 농가들은 그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실행되었지만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커피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불과 2년 만에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활동이었지만, 그러한 이유로 불평도 있었지만 참여한 농민들은 2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평가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와 비 참여 농가를 비교한 연구는 다른 사례에서도 비교를 통해 그 프로그램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멕시코에서 공정무역 생산자와 전통 생산자 간 커피 판매에 따른 가계소득의 변화, 커피 생산의 추가 계획, 토양 보존과 토양 비옥도를 위한 방법 모색, 커피의 세척과 커피 펄프의 처리에 관한 비교가 제시되었다(다니엘 재피, 2012). Utz 인증 체제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베트남 닥락 성에서 참여농가(target group)와 비 참여 농가(control group)를 대상으로 그 성과를 비교한 바 있다(Cosa report, 2013).

다음 표 2, 3, 4는 연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와 비 참여 농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Ea Yong 커뮨에서 조사된 농가의 75%는 1990년대에 커피 경작을 시작하였고, Quang Hiep에서는 80%가 1990년대에 커

표 2. 커피 경작 시기

	커피 경작	1984 이전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년대
Ea Yong	참여 농가		4	11	4	
	비 참여 농가	1		8	4	4
Quang Hiep	참여 농가	2	2	3	9	4
	비 참여 농가			10	10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피 경작을 시작하였다. 이 결과는 저자의 이전 연구 지역이었던 Doan Ket에서 41%가 1990년대 이전에 커피 경작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연구 지역은 커피 생산의 초기에 형성된 지역이라기보다는 커피 생산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전개된 90년대에 재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지역 가운데 하나인 Quang Hiep은 Doan Ket과 같은 지역(Cu M'gar district)에 속하지만 중심 타운에서 다소 벗어난 입지로 인해 접근성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정된 두 마을에서 거주시기는 1984년 이전에 거주한 시기가 Ea Yong에서는 21%이며, Quang Hiep에서는 50%로 나타났다. 주거지 조성은 Quang Hiep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나 커피 생산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연구 지역의 각 마을의 커피 경작 면적의 비교에서 Ea Yong의 농민들은 83%가 1.5ha보다 작은 커피 경작지, Quang Hiep에서는 58%가 1.5ha보다 작은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닥락 성 전체의 가구당 평균 커피 경작 면적인 1.56ha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면적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나 비 참여 농가 간에 커피 경작 면적은 Quang Hiep에서 비참여 농가들이 더 작은 경지 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 구성은 두 지역 모두 95% 이상이 킨(Kinh)족이었으며, 이는 참

표 3. 연구 지역 농가의 닥락성 거주시기

	커피 경작	1984 이전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년대
Ea Yong	참여 농가	3	7	8	2	
	비 참여 농가	4	1	8	2	2
Quang Hiep	참여 농가	12	3	5		2
	비 참여 농가	9	1	7	3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4. 커피 경작 면적

	커피경작 면적	<0.7 ha	0.7~<1.5 ha	1.5~<3.0 ha	3.0 ha>
Ea Yong	참여 농가	7	9	4	
	비 참여 농가	8	7	2	
Quang Hiep	참여 농가	3	6	8	4
	비 참여 농가	8	7	5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여와 비 참여 그룹 역시 거의 대다수가 킨족이었다. 기타 일반적인 속성인 가구주의 분포에서 참여 농가는 상대적으로 50대가 많았으며, 비 참여 농가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은 연령 분포 집단이었다. 연령 분포의 차이는 참여 농가들이 보다 그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의 정도는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구 규모, 교육 정도 두 지역 모두 참여와 비 참여 농가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1)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참여 농가의 성과

다음은 2년간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의 커피 생산량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점은 기존의 커피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속가능한 커피 농업의 실천은 실제 농민들에게 요구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와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참여 농가가 생산한 커피는 크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반영하지만 생산 농가의 기준에서는 생산량은 커피 생산에 따른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로 나누어서 파악하면서 조사자 수는 많지 않지만 참여 농가의 대부분은 커피 생산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단기간의 년 간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두 지역의 많은 농가들은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10~20% 정도 생산량의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일부는 40% 이상의 증가도 보였다. 생산량의 지표로서 판단할 때 이 지역에서 시행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과 관련한 비용부문의 조사는 참여 농가들은 비료와 살충제 구입에서 40%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용 부분의 확인은 실제 어려웠다. 다만 참여자들의 기록 보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조사는 거의 불가

표 5.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생산량의 증가

	0~10%	10~20 %	20~30%	30~40%	40% 이상
Ea Yong	6	7	1	1	3
Quang Hiep	2	10	4	1	4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6.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의 순위

	전체적인 도움이 많았던 순위			경제적인 도움이 많았던 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 치기	16	10	5	1	6	10
비료	14	11	8	25	11	2
살충제	2	3	13	5	13	6
물 사용	8	12	7	6	9	15
커피 수확	0	1	3	1	6	3
커피 판매	0	1	0	0	0	1
커피 건조	0	0	1	0	1	1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능하여 리커트(Likert) 스케일로 환경과 경제적 부분을 조사하였다.

표 6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커피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항목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았던 항목을 재정리한 것이다. 가치치기와 비료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교육과 실천이 참여 농가에게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커피나무의 가지치기 교육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진술이 설문 조사 후 인터뷰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이전에는 다른 커피 경작자들처럼 늘 하던 방식대로 커피나무의 가지치기를 했는데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커피나무의 어느 부분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지치기를 했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교육은 물 사용, 살충제 교육과 실천의 순서였다. 커피나무에서 직접 수확, 커피 판매, 커피 건조에 관한 교육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시행한 교육 때문에 경작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도움은 순위 자체의 중요성 보다는 커피 경작자 개인이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커피 수확은 커피 경작자들에게는 한꺼번에 수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수확을 할 것인가의 선택과 연결된다. 커피 수확기에 같은 나무에서도 커피 열매의 성숙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확하면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비용이 절감되지만 좋은 커피 수확의 측면에서는 나누어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은 비료와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실천이었다. 이 두 부분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업으로부터 비용의 절감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참여 농가들은 커피나무에 고무호스로 물을 공급하는 일반 기존의 방식보다는 전력을 이용한 방식에 의해서 노동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료 및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비용 절감에 관한 경제적 관점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한 환경적인 측면 역시 파악되었다. 환경적인 부분에 관한 영향은 조사기간의 제약 때문에 참여 농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농민들은 화학비료의 사용 정도에서 적게 사용했다는 응답, 동일한 정도의 사용, 더 많이 사용한 정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더 많이 하였다고 많은 참여 농가들이 응답하였다. 이는 화학 비료의 형태, 종류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의 정도로서 평가하기는 부족하였다. 즉 참여 농가는 유기질 비료 투입과 더불어 기존의 화학 비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살충제의 사용에 관해서는 응답자들은 커피 생산에서 약 30%를 줄였다고 응답한다.

2) 비 참여 농가와의 비교

기존의 방식으로 커피 재배를 하는 농가와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또한 이웃 농가로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간 커피 경작에 관한 교류와 정보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계량적인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이 그들의 커피 재배 활동에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비 참여 농가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비 참여 농가 가운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Ea Yong에서는 76.5%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Quang Hiep에서는 85%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비 참여 농가들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행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와 비교하여 비 참여 농가의 농업 기술 정도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를 요청하였다.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커피 생산과 관련한 그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Ea Yong에서 비 참여 두 농가는 참여 농가에 비해 기술이 낮다고 평가하였지만 15가구의 비 참여 농가는 오히려 참여 농가보다 더 나은 기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토양관리에서 다섯 가구가 농업의 기술이 낮다고 평가하고, 12개 농가는 참여 농가보다 더 잘 토양을 관리한다고 평가한다. 그 외 살충, 물 사용, 커피 가공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Quang Hiep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과는 다른 이러한 응답은 주관적 평가에 따른 설문 조사의 한계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실제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의 커피 생산에 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점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 커피 농가의 평가에서는 커피 경작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연구 지역의 조사에서 지적된다. 즉 비교적 젊은 연령층 커피 농가의 인식에는 여전히 커피 재배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2년 시작되어 2013년 말 경 중단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이 기존의 일반 커피 농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마을 내에 존재함과 더불어 커피 재배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다음 표 8과 같이 참여 농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에 관한 응답이다.

비록 비 참여 농가들은 해당 마을에서 시행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커피 재배 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비 참여 농가들 또한 경제적인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커피를 경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즉 자신들의 경험, 이웃 참여 농가와의 교류, 베트남에서 농업 정보의 주요 수단인 TV 방송과 인터넷 매체, 그리고 커피 관련 기업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또는 농민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도 커피 경작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기도 한다. 결국 비 참여 농가들이 참여에 대한 희망은 참여한 농가들이 경험한 각종 지원에 따른 비용의 감소와 일부 프리미엄 커피 가격이 주요 요인이었다.

표 7. 비 참여 농가의 상대적 농업 기술적인 자체 평가

	가지치기		토양관리		살충		물 사용		수확		커피 가공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Ea Yong	2	15	5	12	5	11	3	14	0	17	2	14
Quang Hiep	6	13	5	12	3	16	3	12	4	8	2	9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8. 참여 농가로부터의 영향

	비료 사용	살충제 사용	물의 사용	퇴비
Ea Yong	8	2	5	7
Quang Hiep	4	1	1	5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5. 결론

1990년대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가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며 로부스타 커피종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의 세계 시장 진입과 더불어 세계 커피 시장은 가격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면서 커피 생산국의 농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커피 생산이 부각되었다. 베트남에서도 다른 중남미 지역보다는 다소 늦지만 세계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세계 커피 시장의 흐름인 보다 나은 품질의 커피를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커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소규모의 경지 면적에서 커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커피 시장의 변화는 수익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의 전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의 흐름은 크게 2가지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세계 시장을 지향한 커피 생산의 필요성에 기인한 인증체제와 협력 관계에 의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시행된 비교적 광범위하게 전개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이었다. 인증체계와 외국계 수출기업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과정은 생산, 거래상인, 기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커피 생산 체인과 결합된 것이었다. 그에 비해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은 국제 기구, 정부 기관, 기업, 민간단체, 농민단체, 농민이 상호간 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 그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는 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커피 생산에 관한 농민들의 전반적인 커피 경작의 방법에 기여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불과 2년밖에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참여 농가들은 커피 생산량은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경작에 따른 비용의 증가 때문에 실제 수익은 상쇄된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바람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제시한 지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비용 부담도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비료 와 살충제 사용 및 물 사용의 절약이었다. 이 부분은 주로 경제적인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토양의 비옥도 유지와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졌다. 많은 농가에서 관행으로 하던 방식의 커피 재배 과정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한 참여 농가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은 경제적인 항목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가지치기의 교육과 실천은 많은 농가들이 관행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 참여 농가의 비교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다만 많은 비 참여 농가는 참여 농가에 비해 농업 기술적인 측면은 다르지 않다는 점은 흥미롭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조직자에 의한 참여 조직 농가의 구성이 상당히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뒤 같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의 열린 정보 교환에 의해서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의 커피 생산과정에서 차이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따른 참여 농가의 생산량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 점차 우려되는 상황인 과잉생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긋나는 흐름이 커피 시장에는 항시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단기간 또는 빠른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정무역 또는 유기농업은 농민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실천

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인증체계라는 형태보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증 커피의 시장에서 잠재적 규모는 제한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인증 자체는 커피 이미지와 커피 가치의 제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증 그 자체는 장기적인 면에서 이어져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베트남 농촌 커피 재배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 및 기타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커피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과잉 생산의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 차원에서 농가 소득의 증진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베트남에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도입은 결국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한 것이다. 외부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작된 프로그램이 단기간의 성과는 작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커피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

1) 농가의 비교 조사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참여자와 전통 생산자라는 용어 대신 참여 농가와 자발적인 비 참여는 아니지만 편의상 비 참여 농가로 구분하였음.

2) 일종의 최저가격제와 비슷하나 일반 커피 판매 가격에 약간의 가격을 더 지불하는 형태

참고문헌

다니엘 재피(박진희 역), 2012, 커피의 정치학: 공정무역 커피와 그 너머의 이야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마일즈 리트비노프(김병순 역), 2007, 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모티브.

사라 리온(한국공정무역연합옮김), 2013, 커피와 공동체, 광문각.

이상율, 2013, 베트남 닥락 지방의 커피 생산과 변화, 그리고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pp.389-407.

이용균, 2014, 공정무역의 가치와 한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 pp.99-118.

임수진, 2011, 지속가능한 커피의 역할과 한계: 20세기 말 커피 위기 시대 중미지역을 사례로, 이베로아메리카 13(2), pp.189-228.

정수열, 2013, 계획이주와 자발적 이주간 연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pp.344-358.

조영국, 2013, 베트남 닥락 성에서의 커피생산지리 변화과정과 그 배경, 한국경제지리학회지16(3), pp.323-343.

Amarasinhe, U., Hoanh, C., D'haeze, D., and Hung, T., Toward sustainable coffee production in Vietnam: More coffee with less water, Agricultural Systems 136, pp.96-105.

Cosa Reoport, 2013, Vienam coffee: A COSA Survey of UTZ Certified Farms. Committee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Philadelphia, USA.

Danse, M., and Wolters, T., 2004, Sustainable Coffee in the Mainstream: The case of the SUSCOF in Costa Rica, GMI, 43, pp.37-51.

Department of Crop Production, 2009, Coffee Sector development towards Sustainable Coffee prodcution and Trade in Vietnam until 2020, Hanoi.

Eco-Business, 2013, http://www.eco-business.com/news/sustainable-coffee.

Elder, S., Lister J., and Dauvergne, P., 2014, Big retail and sustainable coffee: A new development studies research agenda,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14, 1, pp.77-90.

Ha, D T and Shively, G, 2008, Coffee boom, coffee bust and smallholder response in Vietnam's Central Highland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2, pp.312-26.

Haggar, J., Jerez, R., Cuadra, L., Alvarado, U., and Soto, G., 2012,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and benefits from sustainable certification of coffee in Nicaragua, Food Chain, 2(1), pp.24-41.

Hardisty, Paul., 2010,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CRC Press, New York.

Kilian, B., Jones, C., Pratt, L., and Villalobos, A., 2006, Is sustainable agriculture a viable strategy to improve farm income in Central America? A case study on coffe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 pp.322-330.

Olam International, 2016, 4C-Olam, 4C Association for better world.

Oxfam 2002 The impact of the global coffee trade on Dak Lak Province, Vietnam: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xfam Great Britain, Oxfam Hong Kong, ICARD.

Smith, S. 2010, For love or money? Fairtrade business models in the UK supermarket sect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92, pp.267-66.

Solidaridad, 2009, Quality and Sustainability Improvemnet of Coffee Production and Trade in Chu Se District, Gia Lai Province, Final Project Report, Embden Drishaus & Epping Consulting GmbH, Hanoi.

Solidaridad, 2011, Farmer Group Organization Manual-Coffee Vietnam, Sustainable Commodity Assistance Network, Second Draft.

Vietnam News, 2013, Forum discusses coffee sector, http://vietnamnews.vn/economy/248555/.

Technoserve, 2013, Vietnam: A Busiess Case for Sustainable Coffee Production, pp.1-12.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09, Sustainability in the Coffee Sector: Exploring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 Background Document for Brainstorming Mechanisms for Sustainability in the Coffee Sector.

UTZ Certified Vietnam Office, 2013, Report Activities of Sustainability Agricultural Products, Buon Ma Thout city, Daklak province, Vietnam.

Valkila, Joni, 2009, Fair Trade organic coffee in Nicaragua - Sustainable development or a poverty trap?, Ecological Economics, 68, pp.3018-3025.

교신: 이상율,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3743, 이메일: sangyool@cu.ac.kr

Correspondence: Sang Yool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3-13 Hayang-ro, Hayang-eup, Gyeongsan-si, Gyeongbuk, Korea, Tel: 82-53-850-3743, E-mail: sangyool@cu.ac.kr

최초투고일 2016년 5월 12일
수 정 일 2016년 5월 25일
최종접수일 2016년 5월 27일